

❖ 정부시책 ❖

'98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확정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유통·입지·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으로 3,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8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액을 올해보다 15.2% 늘려 3,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산업단지활성화, 제조업지원기반 구축 등 5개분야에 걸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중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 분야는 경쟁력약화 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및 제품개발, 신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총 1,230억원을 지원하고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에 850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 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3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단지활성화 분야의 경우 조건부·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 기

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88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분야는 전자상거래(CALS) 체계 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2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술담보사업의 확대를 위해 손실보전충당금으로 올해보다 53.9% 늘어난 40억원을 배정, 내년중 200억원 이상의 기술담보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규범에 적합한 기능별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중전에 생산성향상으로 지원하던 공장집단화사업을 산업단지활성화사업으로 분리해 지원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연말까지 세부사업별 구체적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정, 내년 1월중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공고키로 했다.

한편 산업기반기금의 용자금리는 연 6.5%(기술담보사업은 7.5%)이며 3년거치 5년분할 상환(고부가가치사업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염색공단폐수 처리시설 지원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업종별 사

업자단체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용자사업자를 통산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98 中企 육성시책(안) 마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 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0조원의 재원을 조성, 2만5천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해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대기업과의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전개, 총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2만5천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또 2천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내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전면개편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설정 및 업종·부문별 구조개선추진방안이 포함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올해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늘리며 지역

신용보증조합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도 올해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어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민간주도형 어음보험제도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박람회,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설명회를 활성화하며 貿協 등 4개기관의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상거래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유통센터, 농업무역관 등 해외 유통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기업의 조직망 및 대기업의 현지 부품조달 협업화단지조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공동진출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올해 4만5,650명에서 내년에는 5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역특례 전문연구 요원의 배정비율도 올해 28%에서 2천년에는 5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속 전문요원의 전직·파견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개선,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평가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해 외국인력 관련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발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앞으로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현지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실시공 등 품질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신규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계획 수정내용에 따르면 EDCF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경쟁입찰원칙을 수용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현지법인도 국내업체로 간주,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염가입찰 판행을 막기 위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희망계약업체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EDCF 참여업체가

품질문제를 일으킨 경우 향후 3년 범위내에서 신규사업 참여를 불허하도록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했다.

또 종전에는 11개 주요 지원대상국의 통신·항만·공항 등 주요사업에만 적용하던 우대금리(기준금리보다 1.0-1.5% 인하)를 선진국들이 주요사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67개 지원대상국 전체의 주요사업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정부의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수출금융과의 혼합신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지원절차를 명문화했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12개국 7개사업(4억500만달러) 중 지원대상국가 정부에서 아직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부에서 아직 지원신청을 철회해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파키스탄의 교량 건설사업, 키르기즈스탄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등 5개국 7개 사업을 제외시켰다.

대신 중국의 절강성 비행장확장사업, 니카 두 14개국 17개사업에 4억300만달러를 지
라과 통신망 확충사업, 인도네시아의 병원개 원하기로 했다.
선사업 등 7개국 7개사업을 새로 추가해 모

▲ 1997 EDCF 지원계획(수정)

(단위 : 백만불)

| 구분 | 국가명 | 사업명 | 금액 | 추진현황 |
|-----------------------------|-------------|------------------------------|-------|------------|
| 기존 계획 사업중 제외 사업 | 베 트 남 | 간염백신제조 | 15.0 | '98년 추진 검토 |
| | | 야수프 다목적 사업 | 22.7 | " |
| | 인 니 | 직업훈련 | 12.0 | |
| | | 마이크로웨어브 전송시스템 | 22.5 | |
| | 파 키 스 탄 | 교량건설 | 45.0 | 지원요청 철회 |
| | 필 리 핀 | 직업훈련 | 15.0 | |
| | 키르키즈스탄 | 통신망 현대화 | 12.0 | F/S 제출 준비중 |
| 소 계 | 5개국 7개사업 | 144.2 | | |
| 기존 계획 사업 | 중 국 | 감속성 도시상수도 건설 등 | 54.0 | 지원방침 결정 |
| | | 철도차량 구매사업 | 30.0 | F/S 제출 준비중 |
| | 파 라 과 이 | 통신망 현대화사업 | 30.0 | 예비심사 완료 |
| | 파 테 말 라 | Peace Plan(농촌개발사업) | 25.0 | " |
| | | Amatitlan호수 정화사업 | 6.0 | " |
| | | 수도권정비사업 타당성조사 | 0.5 | " |
| | 파 나 마 | 의료·보건 현대화사업 | 20.0 | " |
| | | 리예카항 현대화사업 | 35.0 | 심사 완료 |
| | 앙 콜 라 | 어선건조(5척) 사업 | 9.5 | 예비심사 완료 |
| | 국 제 기 구 | 협조용자 사업 | 10.0 | |
| | 소 계 | 8개국 10개사업 (당초 12개국 17개사업) | 220.0 | |
| 추가 사업 | 인도네시아 | 병원 개선사업 | 30.0 | 본심사중 |
| | 튀 니 지 아 |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 30.0 | 지원방침결정 |
| | 파 키 스 탄 | 변전설비확충사업 | 20.0 | " |
| | 스 리 랑 카 | 전대차관 공여 | 15.0 | 예비심사중 |
| | 온 두 라 스 | 지방병원 현대화 | 10.0 | 예비심사 완료 |
| | 니 카 라 과 | 통신망 확충사업 | 7.8 | " |
| | 중 국 | 절강성 비행장확장등 | 70.0 | |
| 소 계 | 7개국 7개사업 | 182.8 | | |
| 계 | 14개국 17개 사업 | 402.8 | | |

주) 유럽개발은행과의 협조용자사업(20백만불), 키르키즈스탄 통신망 현대화(12백만불), 인도네시아 병원처리시설 개선(30.0백만불), 가나 송유관사업(35백만불)은 후보사업으로 추진

고온 초전도 기술개발 사업 추진

초전도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과학기술처는 고온 초전도기술이 미래산업 기반기술로서 응용 및 잠재력이 큰 기술분야라고 판단, 오는 2006년까지 10년간 2차 고온 초전도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2차 사업에는 1차 사업에 비해 6배 가량 많은 총 8백1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와 민간이 각각 6백10억원, 2백억원을 분담한다.

이번 사업은 21세기 국가 기술경쟁력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온초전도 응용기술 및 실용화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크게 전자소자 응용기술분야와 전력응용기술분야로 나뉘어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소자 응용기술로는 ◆새로운 의료진단기술에 활용될 양자간섭장치(SQUID)개발 ◆산업시설물 등의 안전성검사와 식품 생의약 철강산업 등의 제품검사 및 연구개발등에 활용될 고감도 SQUID 현미경과 비파괴 평

가장치개발 ◆PCS(개인휴대통신) 기지국에 활용될 마이크로파소자개발 ◆초고속 디지털신호처리기술에 활용될 디지털소자개발 등에 관한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전력응용기술분야의 연구과제는 ◆전력케이블용 비스무스계 초전도 선재개발 ◆고자장하에서 고임계전류밀도를 갖는 YBCO테이프 선재제작 기술개발 ◆한류기 변압기등 고효율 전력부품 및 장치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초전도체는 저항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꿈의 소재로 미세한 자기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자기센서, 고성능의 마이크로파필터나 차세대 디지털소자개발은 물론 무저항 송전 차세대교통수단개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기술개발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

초전도산업은 반도체산업과 같이 급성장, 오는 2010년께는 6백억~9백억달러 2020년에는 1천5백억~2천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